



리빙 어버이날 선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표현하세요”

설문 결과 ‘현금 드리겠다’ 최다 용돈 품은 케이크·꽃상자도 인기 코로나19 접종 꼼꼼하게 준비해야

오는 8일은 어버이날이다. 5월 가정의 달은 유독 챙겨야 할 날들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어버이날이 아닐까 싶다. 부모님에 대한 감사에 마음은 1년 365일 변함이 없었지만 이날만큼은 조금 더 마음을 담아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 선물만도 좋지만 감사의 말이나 편지가 함께 하길 바란다. 이번주 휴플러스 리빙에서는 어버이날 선물 준비에 대해 알아본다.

▶올해도 역시 현금이 대세-이커머스 업체 티몬이 어버이날을 앞두고 고객 700명을 대상으로 ‘어버이날 선물’ 선호도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어버이날 드리고 싶은 선물’로 가장 많은 64%의 응답자가 ‘현금’이라고 답했다. 뒤를 이어 건강식품(14%), 패션상품(7%), 건강가전(5%), 기타(10%) 순으로 나타났다.

또 자녀들은 부모님께 드릴 선물 예산으로 10만원~20만원 이하(50%)를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10만원 이하(35%), 2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12%)의 응답 순으로 많았다.

▶용돈 케이크부터 효도 성형까지... 이색 선물=모두가 좋아하는 현금 선물뿐만 아니라 부모님께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이색 선물들도 관심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른바 ‘반전 케이크’라 불리는 용돈 케이크가 있다. 맛있어 보이고 예쁘게 생긴 케이크지만, 안쪽을 잡아당기면 비닐에 쌓인 현금이 줄지어 쏟아져 나온다. SNS 상에 올라와 있는 영상만 보더라도 부모님의 얼굴에 웃음꽃이 한가득 피어나는 순간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과 함께 이벤트로 준비해봐도 좋은 아이템이다.

카네이션만 드리는 것이 식상하다면 마찬가지로 용돈을 활용한 ‘플라워 박스’도 있다. 플라워 박스는 상자 속에 꽃들을 낳게 꽃아 장식해 선물하는 상품으로, 박스 한쪽에는 용돈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꽃과 용돈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아이템이다. 생화로 장식해도 좋지만 조금 더 오래 꽃을 보고 싶다면 프리저브드(생화를 건조·가공한 꽃) 플라워를 이용해도 좋다. 프리저브드 플라워는 가공된 상태로 2~3년 정도 형태나 색상의 변화 없이 유지돼 오래 두고 보기에 안심맞춤이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년층에서도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눈가 주름이나 피부 노화에 따른 탄력 저하 등으로 미용적 측면뿐만 아니라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상·하안검 성형이나 눈밑 지방 재배치 등을 통해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기는 인상으로 변화를 줄 수도 있다. 효도 성형의 경우에는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모님 건강 챙기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오는 10일부터 6월 3일까지 65~69세 일반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60~64세는 오는 13일부터 접종을 시작해 6월 3일까지 진행된다. 접종 대상자인 부모님을 위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들이 있다.

예방접종 대상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ncvr.kdca.go.kr)을 통해 접종 날짜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예약은 웹과 모바일 모두 가능하며 전화예약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제주도청 710-2922-4 ▶제주시 제주보건소 728-1411-1414 ▶제주시 동부보건소 728-4208 ▶제주시 서부보건소 728-4122, 4163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760-6085-7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760-6181, 6182, 6762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760-6705.

만약 접종 당일 37.5℃ 이상의 발열이 있거나 급성 병증을 앓고 있다면 회복될 때까지 접종을 미루는 것이 좋다. 또 접종 후에 이상 징후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접종 부위의 부기, 통증, 발적(빨갧게 부어오르는 현상)이 48시간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거나 접종 부위가 아닌 곳에 멍이나 출혈이 생기는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를 복용해도 두통이 나아지지 않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 접종 후 4주 안에 호흡 곤란, 흉통, 팔 또는 다리에서 부기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접종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미리 파악하고 이상 반응과 대처 방안을 미리 알아둔다면 안전한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영화관

시와 산책

얼마 전 아름다운 책을 읽었다. 한 정원 작가의 ‘시와 산책’이라는 산문집이었는데 글들이 맑고 단정해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누군가가 이른 아침의 수고로 떠온 달고 찬 물을 마시는 것 같은 상쾌한 기분이 드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시 그리고 산책. 어쩌면 현대인의 일상에서 이 두 가지는 일상의 필수 목록 중에서는 조금 멀리 위치한 말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시는 문학 중에서도 소수의 독자를 가지고 있어 쉬이 베스트셀러에 오르기 어렵고 산책은 그 시간의 틈을 내기도 어려운 데다 마땅히 여유를 가지고 걸을 길을 찾기가 어려워 수월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와 산책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아니 알고 있다기 보다는 믿고 있다고 쓰는 쪽이 맞는 것 같다. 수많은 말들의 전장 속에서 다소곳이 물러나 스스로의 마음 깊은 곳에서 건져 올린 감정의 정수인 시의 언어는 우리의 삶을 잠시나마 멈추게 만든다.

영화 ‘패터슨’은 시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관한 이야기다. 패터슨이라는 소도시의 버스 운전사 패터슨은 출퇴근, 도시락, 아내, 가정, 퇴근 후 맥주 한 잔, 개와의 산책 등으로 이루어진 반복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그에게 시가 있다. 그는 패터슨에 살았던 시인의 존경해 그의 시집을 보석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매일 자신의 시를 쓴다. 패터슨에게는 그 행위가 몸에 익고 생활에 녹아들어 ‘시를 쓴다’는 말이 주는 다소의 난이도가 ‘물을 마신다, 하늘을 본다’는 말처럼 익숙하기만 하다. 덕분에 영화는 자주 관객을 멈추게 만든다. 시를 쓰는 사람이 멈추어 무언가를 바라볼 때 관객 역시 스크린 속 인물과 같은 방향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영화 속 패터슨이 동네 벤치 앞에 앉아 그 자연을 바라볼 때 어떤 일본인 시인이 그의 옆에 앉게 된다. 그리고 그는 ‘시를 정말 좋아하나 봐요’라는 패터슨의 물음에 자신은 ‘시로 숨을 쉰다’라고 말한다. 그 둘은 그 벤치에 앉아 한 곳을 바라보며 걸



영화 ‘패터슨’

지 않은 말들로 풍성한 대화를 이어간다. 이 범상하고 우연한 만남은 이 영화 속에서도 밖에서도 러닝타임 이상으로 머무른다.

장건재 감독의 영화 ‘한여름의 판타지아’는 산책이란 단어를 듣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화다. 일본의 고조시 작은 마을에서 촬영된 이 영화는 흑백의 1부와 컬러의 2부로 나뉜 작품으로 우연히 낯선 곳을 찾은 이들의 여정이 이루어지는 영화다. 또한 이 영화 속 여정의 풍광을 온전히 담아낸 아름다운 장면들은 영화를 보는 것 같다. 수많은 말들의 전장 속에서 다소곳이 물러나 스스로의 마음 깊은 곳에서 건져 올린 감정의 정수인 시의 언어는 우리의 삶을 잠시나마 멈추게 만든다.

어쩌면 영화를 본다는 일 또한 유용보다는 무용에 가까운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시의 언어를 만드는 것처럼 영화를 전전히 되새기고, 산책을 하는 자의 그것처럼 앞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내어주며 나는 행복하다는 말을 하고 있었다. ‘행복하다’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날이 과연 그리 멀을까. 분에 넘치게 유용한 날들이었다.



진명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

태양광설비 정부 보조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99호]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00호] 신재생에너지 보급(건물지원)사업 공고

🏠 단독 주택

자부담금 230만원

- 기존/신축 주택 소유자, 소유예정자
- 설치용량 3kW, 공사비 50% 보조금 지원
- 공동주택 (아파트/다세대) 별도상담
- 타운하우스 등 단체신청시 특별할인

🏢 상가 건물

자부담금 : 공사비의 45~50%

- 사무실/식당/펜션/공장/학원/축산시설 등
- 설치용량 200kW까지 지원가능
- 건물 용도별 맞춤형 컨설팅/설계/시공
- 공사비 50~55% 보조금 지원

신청 기한 : 단독주택 **예산 소진시까지** / 상가건물 **5월 11일까지**
 상담 접수 : 제주솔라에너지(주) **742-5775**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2020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2021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S전담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